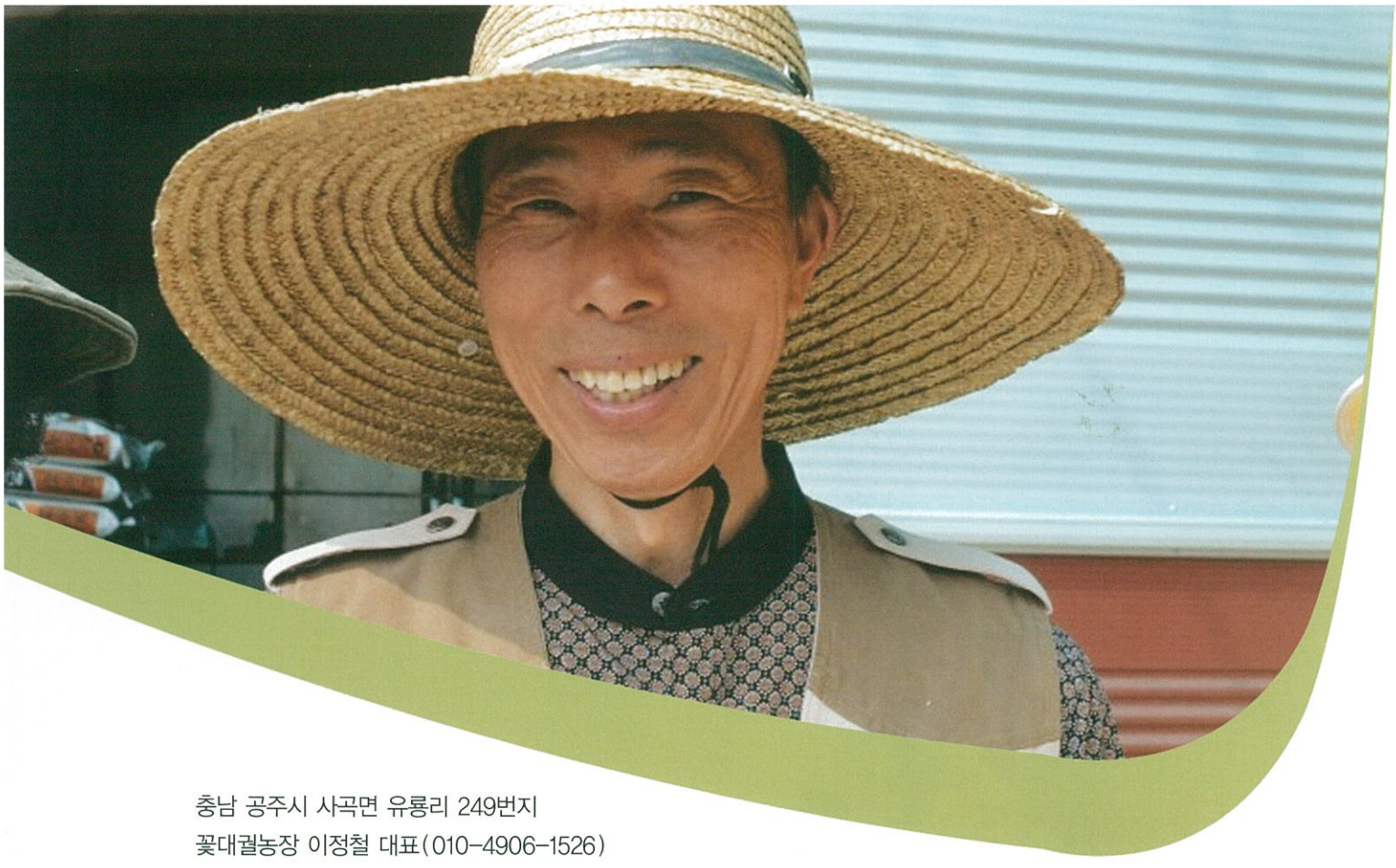
"개복숭아가 참으로 좋지유 ~"

소박한 자연인 꽃대궐농장 이정철 대표

- 천안중학교 15회 졸업 안성중학교1회 졸업
- 서울중앙대학교약학대학 18회 졸업
- 경기도 도립안성병원 근무3년
- 개업약사 27년
- 2002년 건강이 안좋아 약국문을 닫고 귀농하게됨

취 재 : (사)한국산림경영인협회 홍보기획팀장 구 윤 자



충남 공주시 사곡면 유룡리 249번지
꽃대궐농장 이정철 대표(010-4906-1526)

꽃대궐농장 이정철 대표는 27년간 화려한 약사사업을 포기하고 시골로 귀농한 귀농인이다.

6형제 중 5남으로 중앙대학교 약학대학을 마치고 30년간 개업약사로 근무하다가 건강을 위해 도시생활을 미련 없이 버리고 맹지나 다름없는 17만여평과 산과 논밭 30여필지는 매입하여 귀농을 했다.

이정철 부부가 농촌에 내려오자 주택문제는 비교적 쉽게 해결되었다.
산 아래 살던 분이 이사를 하게 되어 주택을 구입하여 4년간 살면서 주변의 대지를 흡수하여 지금의 주택을 신축하였다. 그러나 진입로 문제는 간단하지 않았다.

집에서 농장까지는 500미터 쯤 되는데 작업로가 없으면 각종 농기계가 들어갈 수 없었다. 이 길을 뚫는데 20여 년간 36필지나 되는 논밭을 구입하고서야 비로서 진입로를 만들 수 있었다. 농장진입로 개설을 위해 다리도 놓고 포장한 도로의 거리가 2Km 정도 된다.

농장개발 자금은 약국을 폐업하면서 마련한 10억여 원을 가지고 개발을 시작했다. 수종은 당시 비교적 수익성이 좋다고 하는 밤과 개복숭아, 매실, 주목, 조경수를 선택했다.

밤나무를 주종으로 선택한 이유는 공주는 밤이 브랜드로 밤을 선택해야 인가도, 지원도 쉽기 때문에 주저 없이 밤을 선택했다.

품종을 최신 개발된 신품종 위주로 조생중과 만생품종을 고루 선택하였다. 인허가 문제는 86년도에

임도 4.5Km를 개척하고, 2002년도에는 산림경영계획 수립하여 2년 후에 10정을 허가받아 삭벌과 함께 밤나무 식재했다. 밤나무는 6년 동안 나누어 심고 개복숭아, 매실, 주목은 심은 지 5~6년이 되었다고 한다.

개발초기에 이정철 부부는 의욕이 앞서 계획적이지 못하여 길을 내는 것도 아래쪽으로 했다가 불편하여 다시 위쪽으로 내고, 개발 범위도 관리능력을 고려치 못하여 중복 투자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수종 선택도 전문지식 없이 선택하여 얼어 죽고, 습지에 심어 묘목이 죽는 일도 있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점은 17만평 넓은 면적을 관리하다보니 노동력 한계를 느꼈고 앞으로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관리를 다하지 못한 것이 숙제라고 말한다.

그 동안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강소농교육, 공주농업대학, 알밤아카데미, 산림아카데미 교육을 이수했고, 독림가 신청을 하여 독림가가 되었고, 산림경영인협회도 가입하였다.

정보통신 분야에도 관심을 가지고 PC나 SNS 등도 관심을 가지고 해보고 있으나 벌써 눈이 어두워 어려움이 많다고 한다.

유통문제는 개인판매, 인터넷판매, 농협 등을 이용하고 있으나 개인판매를 더 넓히려고, 2014. 7. 1일 제1회 꽃대궐 팜파티 개복숭아 축제를 열기도 하였다.

개복숭아

“ 산속에서 자생하며 기관지염, 천식, 관절염, 류마티스관절염, 골다공증에 효과가 있고 어혈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좋게 해주는 정혈작용과 피부미용에도 좋으며 통변작용이 있어 변비에도 좋을 뿐만 아니라 아스파라긴산, 글루타민산, 사과산, 구연산 등 유기산이 있어 피로회복에 아주 좋다. ”

성공과 보람된 일을 묻자, “나의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면서 자연과 함께 변화되어가는 농장의 모습에 만족과 행복을 느끼며 살고 있다.”고 하면서, “작년부터는 손수익의 전환점이 되는 해가 되어 수익을 기대해 보는 것도 즐거움이다. 10년 안에 우리 농장의 수익규모는 5~6억이 되어 있을 것이다.”

개북숭아를 집중 재배하기 시작한 동기에 대해서 이정철 대표는,

“요즈음 개똥쑥, 개망초, 개살구…….개자가 들어가면 상종가를 친다. 개란 개처럼 천한 동물이 아니라 모든 성분이 다 포함되어 있는 포괄적 개(槪)라는 뜻으로 개복숭아 씨는 한방에서 도인이라 하여 널리 쓰이고 있다.” 라고 하면서, “개봉숭아 효능인 혈전용해 작용은 혈행을 좋게하고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 성인병에 효과를 나타내고 여성들의 월경불순과 변비, 기관지에 작용하여 기침가래를 없애주는 효과도 나타내고 있다." 라고 답한 후 "이런 작용이 있는 개복숭아가 농장 입구에서 자생적으로 자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모수(母樹)로 하여 늘려나가고 있으며 봄이 되면 개복숭아 꽃이 만발하면 그야말로 꽃대궐을 이룬다." 고 꽃대궐농장 작명했다고 한다.

이정철 대표는 산림분야 발전을 위하여 1만여 평 부지를 한국산림아카데미 연수원부지로 기증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각기 다른 달란트를 맡겨 주셨다. 내가 가진 재산, 내가 가진 재주 등은 세상의 천국을 세우는데 내놓는 것은 나의 의무이다."라고 하면서 "아름다운 동산을 만들어 모든 이들과 함께 즐기는 것이 나의 바램이다." 山林

자연과 함께 나무를 가꾸며, 이웃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이정철 부부의 삶